

몽고문화의 고고학적 순례기

마이달 외 지음 「몽고문화사」

광활한 스텝지역을 배경으로 기마민족의 품 넓은 진취성을 보여주었던 13세기 몽고의 '원정기'는, 그들이 인류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모습이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몽고에 대한 이미지는 오히려, 내륙아시아라는 지리적 폐쇄성에 이데올로기적 장애물까지 더해진 '오지'에 가깝다. 선뜻 관심의 촉수가 미치지 않는 이 몽고에 관해 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한 「몽고문화사」(D.마이달, N.츄르템 지음/ 김구산 옮김/ 동문선판)은 우선, 학술적·이론적 외피를 벗겨내고 몽고의 숨겨진 역사를 유물과 유적을 통해 드러내주는 '고고학적 순례기'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책은 크게 선사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몽고문화의 시대별 변천사와 보편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 전반부와 응용장식공예와 회화로 대표되는 몽고미술을 집중조명한 후반부로 구성돼 있다.

아직 가설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인류의 내륙아시아 기원설'을 뒷받침할 만한 거대한 척추동물화석 집적지를 근거로 몽고를 인류진화의 첫무대로 상정하고 있는 이 책에 의한다면, 몽고(인류)의 선사시대는 약 1~2억년전으로 소급된다. 가장 오래된 원시 수렵민들의 석기 및 주거지가 몽고 각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가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몇몇 학자들은 특히 '礫器'의 유사성을 들어 구석기시대 수렵민들이 아시아로부터 아메리카로 이동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후 신석기시대까지 걸쳐 몽고의 이른바 '원시예술' 중 가장 뛰어난 유물로 평가되는 것이 岩畵와 鹿石이다. 동굴이나 암벽, 큰 바위 등에 주로 짐승과 수렵장면을 그려놓은 이들 암화는 정확한 체형비율과 묘사로 사실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암화가 인류의 문명발생지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유물이라면 (일례로 스페인의 프레스코 동굴벽화를 들 수 있다) 녹석은 몽고의 문화사적 풍경을 특징짓는 독특한 유물이다. 단면이 등그스름한 장방형 돌기둥으로 윗쪽에는 크고 작은 각종 원반이, 가장자리에는 오각형의 격자 圖文(방패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단검·창·도끼 등의 무기와 사슴이 조각돼 있다. 특히 붉은 사슴인 '말라르'의 묘사가 많은데, 고고학 문헌에서 바로 유물명 '녹석'의 유래가 된다. 녹석은 원시시대 여러 부족들의 신앙·예술·세계관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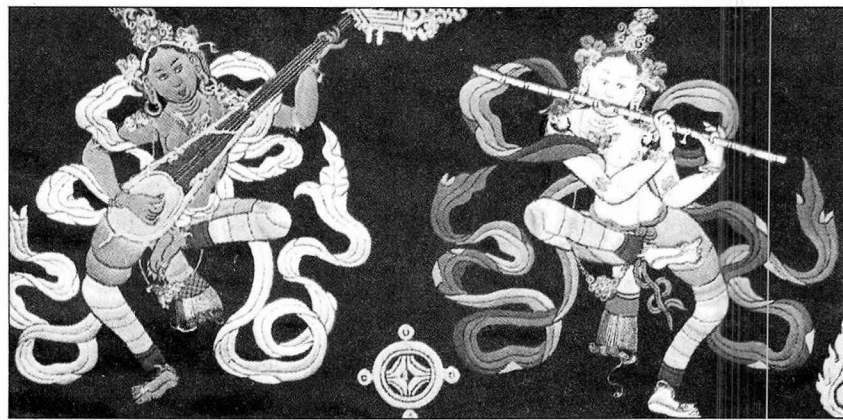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몽고 민속학에서도 유희·노래·시 등이 모두 사슴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 사슴은 가장 고귀한 동물로 상징되면서 지금도 만나게 되면 길조로 생각한다는 것.

한편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해온 몽고인들의 주거지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그것도 도시와 촌락의 형태로 8세기 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주거지는 반유목적 정착생활을 하던 주민들의 일부에 의해 초기의 '유르트'(천막집)에서 차츰 반지하식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현재 몽고에는 2백개 이상의 고·중세 주거지 유적들이 보존돼 있다고 하는데, 영구촌락인 성곽도시는 흉노시대부터 건설되었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이 성곽도시에서는 비석과 동물석상을 비롯해서 관수로의 흔적까지 남아있으며, 거란시대 이후의 도시에는 사원이 남아 있어 그들의 불교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불교가 공식종교가 됐던 16세기 무렵에는 해체가 가능한 목조사원에서 종교의식을 치렀고, 유목민과 함께 이동했던 이들 사원은 19세기가 되어서 차츰 일정한 장소에 세워지게 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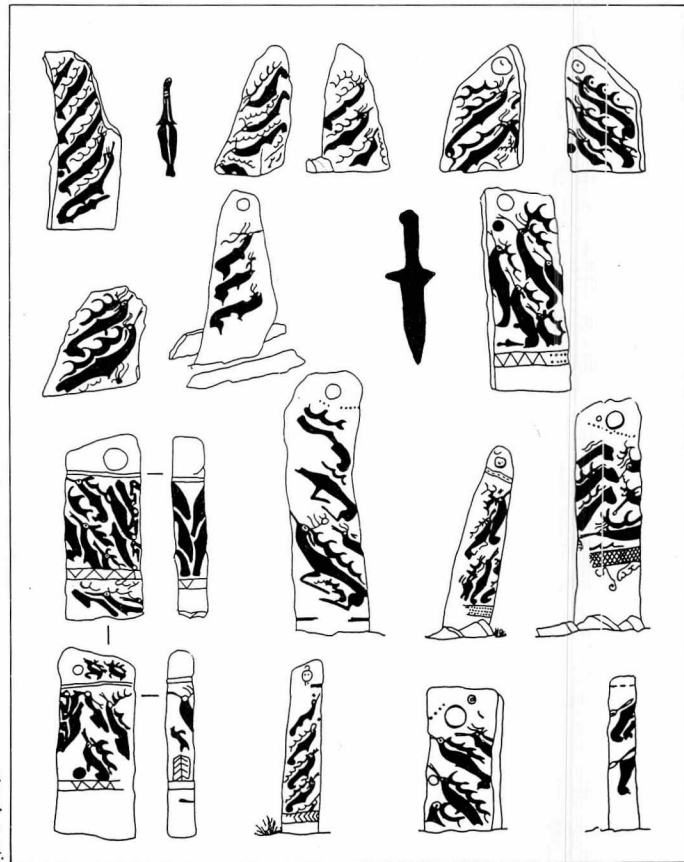
몽고는 일찍부터 나무를 이용한 수공업이 발달했는데 수공기술을 다양하게 응용한 장식공예품은 몽고예술을 대표한다. '다르한'으로 불리는 匠人들은 목재 뿐 아니라 철, 구리, 은 같은 금속을 이용해 무기에서부터 생활용품·장신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능제조사'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특히 금속품의 가공과 제조기술은 유목민들에 의해 고도의 발전을 이뤘고 더불어 그들의 생업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몽고의 佛畵는 '자수회화'라는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 융단자수에서 시작해 몽고제국시대에 융성했던 이 자수회화는 근세로 접어들면서 불화제작으로 이어져 18~19세기가 되면 급기야 일반회화불화와 경쟁할 정도로 기법상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형광과 실은 착색된 견이나 면직물을 사용하고 산호·진주·터키석 등 보석류가 아낌없이 장식되어 선명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 이들은 몽고의 민족적 회화를 일컫는 '몽고 즈라구'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힌다.

이제까지 발굴·발견된 유물과 유적지를 통해 주로 고대와 중세몽고의 문화를 조감하고 이 책은 몽고문화의 기저를 뿌리깊은 유목생활에서 찾고 있다. 즉 주거문화는 단순함과 실



지수로 된 불경의 표지. 착색된 형광과 실을 사용하고 각종 보석류로 장식하기도 했다.



붉은 사슴 '말라르'가 새겨져 있는 각종 녹석, 원시부족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상징한다.

용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 생활용품과 미술품 등은 '손이 많이 가고' 화려한 공예품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성격의 몽고문화는 현재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보호정책으로 차츰 체계화·조직화되면서 그 전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21년 인민혁명 후 몽고정부는 지금까지 혁명기념관 설립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등 22개의 박물관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박물관들의 특징은 고대유물 이외에도 체제이념에 걸맞는, 이른바 '해방운동'에 관련된 유물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책은 "땅 위나 땅 속을 불문하고 이와같이 풍부한 기념물,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남아있는 나라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소련의 한 고고학자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몽고문화는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와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문화유산 중에서 훌륭한 것, 진보적인 것을 나의 것으로 이용한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문화건설'에 의욕으로 자칫 왜곡 전달될 가능성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정소연 기자